

#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Apr. 2017  
Vol.5 No.4

- 제5기 힐링캠프
- 부활주일예배
- 세례·성찬식
- 교육부 소식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 제5기 힐링캠프

주안예교회 힐링캠프가 벌써 5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기 힐링캠프에는 너무 많은 씨커스분들이 참가신청하여, 접수를 조기 마감하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주는 물론이고 멀리 한국에서까지 20여분이 참여한 이번 힐링캠프는,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 총 106분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리라는 열망을 안고 지난 4월 23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벨리채플에 모여 등록을 마친 후 4시 30분, 준비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10대 후반의 젊은 성도로부터 80대의 권사님까지 모든 연령층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3박 4일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은 힐링캠프가 주는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4기까지 참여하신 성도님들중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이 힐링캠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최혁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만나 시간에는, 횃수가 거둬질수록 씨커스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였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2면에 계속)

| 이광영 기자 |



〈1면서 계속〉 이성우 전도사를 중심으로 오래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100여명의 씨포터즈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씨커스분들을 섬기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 힐링캠프 씨포터즈로 참여하기 위해 장거리를 운전하고 내려온 최민애 집사는, 타주에 사시는 두분의 씨커스를 함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

려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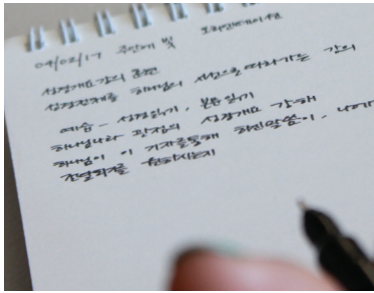
또한 씨커스로 참여한 박한신 집사(벨리체플)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라고 하며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쉽고도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6일(수요일) 버스를 타고 벨리체플로 내려오며 서로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다시 한 번 그 감격스러운 순간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한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씨커스나 씨포터즈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렇게 세상 어느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하늘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벌써 많은 분들이 다음 6기에는 꼭 씨포터즈로 참가하겠다고 알려옴으로 올 10월달로 예정된 제6기 주안에 힐링캠프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성경의 흐름 ·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눈에...



### ■ 주안에빛(LA채플)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엘에이 채플에서는 4월 4일 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성경공부 "주안에빛" 과정을 위한 예비훈련이 있었다.

"주안에빛" 은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개요 강해로 "통큰통독" 이라는 교재를 기초로 12 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시대적 분류로 시간의 흐름 따라가기,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 따라가기" 이 두가지 관점의 교육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과, 또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훈련과정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필수과정인 셈이다. 예수를 중심으로 이어가는 과정이므로 철저한 예수는, 강의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자세를 익혀감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다.

세개의 채플에서 20명의 훈련생이 참가하는데 거리상의 문제나 가정, 직장, 건강의 문제

등의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실인의 마음으로 모든걸 받아들이고 열린마음으로 임하기를 약속하며,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예비훈련은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여서 영적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는 무서운 사건들을 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우고 정직하게 실천하며, 진심으로 전해야 한다. 바로 주안예교회의 모든 교육과정이 멈춰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오희경 기자 |

##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제자의 삶을...

### ■ 세례/성찬식

세례식과 성찬식이 4월 5일 플러튼채플, 4월 6일 LA채플, 4월 7일 벨리채플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최혁 담임목사의 집례로 각 채플별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던 성례이어서 그런지 여느 때보다 더욱 엄숙하고 뜻 깊은 예식이었습니다.

먼저 세례식에서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세례를 주시며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채플별 세례, 입교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플러튼채플(수): 세례: Isaac Han, 입교-John Kim, LA채플(목): 세례-김태호, 기아영, Jason Oh, Katie Park/ 유아세례-조민우(조원/김현경 집사 아들), 벨리채플(금): 세례- Leonard James, 유아세례-Faith Kim(김병선/수지 집사 딸). 세례식을 마치고 많은 교인들로부터 축하와 함께 꽃다발을 받아든



성도님들과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님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일평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세례식을 마친 뒤 진행된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시고 찢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남은 생애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부활주일에배



## 세대와 언어를 넘어 '예수부활' 찬양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에도, 주안예교회에도 부활의 아침 해가 밝게 빛났습니다. 주안예교회의 부활절 잔치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담당한 봉사부, 파킹을 돕는 사람들, 영상을 맡은 사람들, 무대 장치를 맡은 사람들, 안내를 맡은 사람들, 무대에서 순서를 맡은 사람들, 모두가 새벽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새 생명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준비하는 손길이라 몸과 마음이 모두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예배의 첫 순서는 ICY 중고 등부의 바디워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청

년들의 아름답고 젊음이 넘치는 춤에 교우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팀과 함께 온 교우가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손자녀가 함께 일어나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 명이 넘는 연합 성가대는 '나는 믿노라'를 외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대속,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안예교회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안에 교회의 연합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립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손녀가 첼로를 가지고 나와 첼로 삼중주를 연주하였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삼대의 연주를 할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함께 손잡고 감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크레도 중창팀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안에 밴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진 순서는 코람데오 청년부의 그림자 스켓이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스케치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가롯 유다의 배신, 고난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인간 예수님과 약한 제자들, 수제자인 베드로의 부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휘장이 갈라지며 저주의 상징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위용을 드러낸 십자가로 장식하였고, 교우 모두가 일어나 구원을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환호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에 주신 새 생명들을 축복해주셨습니다. 박이삭, 조운, 구하선의 생애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진리의 흔적만 남게 하옵소서.

최혁 목사님께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은 죄 사함의 확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이 효력이 있다는 증거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시험과 유희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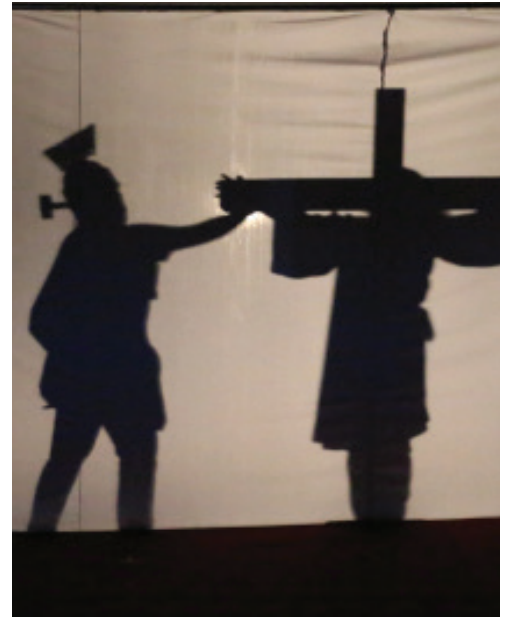
| 조성운 기자 |



■ 사진: 안동운 집사, 양영 집사, 남성우 집사, 정인섭 집사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성극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재현하는 청년부원들

##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은혜 감사



3대가 함께 첼로 3중주로 영광을 돌리고



ICY 중고등부 학생들의 열정적인 바디워십



세 재물 연합성가대의 찬양 '나는 민노라'



혼성중창으로 하나님을 찬양

■ 제5기 주안에 힐링캠프



In Christ  
말씀의 자유...  
회복의 기쁨



■ 사진: 김다슬 집사, 양영 집사, 정인섭 집사

Healing Camp

나를 만져주신  
성령의 터치



■ VBS준비모임

## “3개채플 연합 어린 자녀들 위한 말씀잔치로”

지난 부활주일에베가 벨리 채플에서 은혜롭게 끝난 직후 세 채플 통합 교육부 모임이 2017년 VBS 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2017년 VBS 주제는 "MAKER FUN FACTORY" 이다. 전년 VBS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2박3일 캠프(6/15-17) 형식으로 벨리 채플에서 진행된다.

세 채플이 모두 벨리채플에 모여 2박 3일 함께 지내면서 온전히 서로가 하나된 예수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단 IC JOY 아이들과 Kinder 제외) 한편 플러튼채플에서 6월 6-17일 예배 후에 IC JOY와 Kinder 아이들을 위한 VBS가 따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VBS를 통해 다음세대 믿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터치하실지 사뭇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며 기다려본다. 교육부의 문턱은 항상 낮고(?)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VBS Registration Fee: \$25 in May (Sibling

Discount \$5), \$30 in June. (문의: 이니콜 전도사 213-675-7816, 김유진 전도사 213-863-6348, 이규화 전도사 818-808-3373) | 박희정 기자 |

■ 8교구(플러튼채플)

## “구역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돌봄에 늘 분주”

주안에교회는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이다. 주안에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영성 깊은 설교에 주안에 교회 교우들은 차근차근, 그리고 급속히 하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한 모습을 교회와 세상에 적용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와 교회가 속한 커뮤니티의 이곳저곳에서 피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러튼의 8교구 2구역 사람들이다.

먼저 구역장이신 이에스터 권사님은 7순을 넘기신 은퇴 권사님이시지만, 교회의 사역과 봉사는 현역 교우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왕성하게 하고 계신다. 이 구역은 구역원이 6명밖에 안 되는 미니구역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교회에 주는 영향력은 그 어떤 구역보다 힘 있고 거세다. 구역장님의 구역원들을 위한 ‘돌봄’ 사역은 그야말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올해 주안에 교회의 표어로 정한 바로 그 ‘돌봄’ 사역이다. 매일 새벽에 구역원들을 위하여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구역원들의 심방을 비롯한 각종 가정사에 24시간, 365일 분주하게 뛰고 달려신다. 특히 간경화로 사망 선고까지 받고 투병하시는 민은식 형제님을 위해서는 먼 길을 마다하고 도움



의 손길을 주고 계신다.

민은식 형제님은 간경화와 합병증으로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1년 여 전에 최혁 목사님께서 심방하시고 기도해주신 이후로 병세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힐링캠프에 ‘죽으면 순교’라며 올라가신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며 살았던 지난 인생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병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주안에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시다. 병원에서는 살릴 수 없는 제병을 주안에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의 기도가 살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말리지만 힐링캠프에 올라갑니다. 그

곳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그 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민은식 형제님의 놀라운 선언에 다른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기적에 놀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이신 민경숙 집사님과 구역 식구인 박상옥 안수집사님도 힐링캠프에 함께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과 가정 일을 핑계로 힐링캠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버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올라가도록 강권하시며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그동안 미뤄진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구역장님과 제 아내(수 한 집사)의 적극적인 후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강한 부르심을 듣고 올라갑니다. 치유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구역장이신 이에스터 권사님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모든 개인 일을 중단하고 서포터로 올라가신다. “구역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 삶의 산소이고 생명입니다. 아마도 힐링 캠프에서는 다른 구역식구들보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내려올 것입니다.” 6명의 구역원 가운데 4명이 올라가는 이번 힐링캠프에서 8-2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감히 기대된다.

| 조성운 기자 |



■ 고난주간 특별새벽집회

##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주안에 교회 교우들이 새벽 어둠을 가르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고난주간의 행사가 아니기를 소원하며 이 한 주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길 가에 떨어져 짓밟힌 한 송이 장미꽃처럼, 그렇게 추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온갖 멸시천대와 모진 고난을 감내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 같은 배신자를 위해서, 백 번 죽어도 가당한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가시관 쓰고, 멸시 천대와 조롱을 견디신 이유가 바로 저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피땀을 흘리며 올라가시는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을 내리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먼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주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용서를 빕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셔서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저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세상만 보고 관심을 가졌으며, 물질과 권세를 비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죽음을 헛되이 살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인 양 으스대는 제 모습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에서 2천 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도 아닌,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저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세상을 향해

죽음을 과감히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갈2:20). 내가 아끼던 세상의 물질과 권세는 이제 더 이상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번제에 동참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새벽에 주안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깨우쳐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주안교회 성도들의 여름 건강을 위해 벨리채플 의료국의 한의학 박사 정영안 집사가 우영차의 효능과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우영차는 천중산삼, 산삼, 인삼, 홍삼 만크이나 사포닌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조금만 시간을 내어 만든다면 저렴한 값에 우영차를 만들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박창신 기자**

1. 우영을 껍질째 깨끗이 씻는다. (껍질에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2. 0.5 cm 두께로 일정하게 썰어 건조시킨다. (a. 식품건조기 사용시 60 도에 3-4 시간/ b. 자연건조시 바구니, 신문지나 천을 깔고 그위에 골고루 퍼서 따뜻한 햇살에 2-3일 동안 말린다.)
3. 잘 마른 우영을 후라이팬에 볶는다: 처음엔 센 불에서 볶다가 약한 불로 조절하여 태우지 않고 엷은 갈색이 되도록 볶아준다.

### 건강에 좋은 '우영차'

효능: 혈액순환 촉진,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E가 면역성을 높이고 비타민B가 신진대사를 향상시킴,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부종을 개선, 마그네슘이 혈당과 체온을 조절, 철분이 빈혈을 예방,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사포닌과 변비 개선에 좋은 식이섬유와 이눌린이 풍부



4. 볶은 우영은 식혀 플라스틱 백에 넣어 선선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 우영 3-4조각을 뜨거운 물 한 컵에 넣어 우려 마신다.
5. 여름엔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혀 마시면 갈증해소에 좋다.

\*주의사항: 1) 우영차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과다섭취 경우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은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 힐링캠프 간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정강수 집사(플러튼채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간증의 글로 전할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몇 몇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에 다녀온 경험이 있기에 이번엔 어떤 은혜를 주실까보다는 무엇이 다를까하는 기대감이 더 컸었습니다. 또 한 편으론 마음속엔 진정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시간시간 최혁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아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제가 확인 안해도 저의 마음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양의 비유와 우리의 상태를 통하여 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하여, 사랑과 죄짐 그리고 십자가와 은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두번의 물으심 그리고 다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세번째 물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도우시는 성령님, 고난을 주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들어 주시



는 하나님, 생각과 말을 통한 영적전쟁, 하얀 배구공 속의 성령의 은혜, 눈과 귀와 입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영적전쟁의 승리 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와 같이한 시커스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예배시간마다 은혜의 바다에 사랑의 물결로 회개와 감사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통해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시커스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아끼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신 목사님들과 서포터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찬양팀으로 봉사하기에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신 최고의 찬양팀에게 저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눔과 돌봄으로 헌신하며 실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 했던 은혜와 제가 받은 은혜가 같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넌 너무 바빠 만날 수가 없구나..."

임종희 집사(LA채플)

난 갈 수 없으니까! 하고 지나치고 있던 힐링캠프에 갑자기 내 마음은 올라가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신청동기가 무엇인가? 여러 칸에 체크만 하면 되는데 감히 성령의 감동이라 적으면서 내가 없으면 안된다는 공장과 가게도 주인이신 주님께 내뿜개치고... 경치 좋은 산장에 도착하니 벌써 와 계신 믿음의 승리자들이 환한 미소와 환호와 박수로 내 마음을 열어주었다.

환영식에 이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첫날 저녁시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납이 차려준 밥상을 받아 푸짐히 먹고 침묵을 약속하며 숙소로 들었다. 모두가 잠들 즈음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에 다니며 밤을 새웠다. 토사로... 소화제 가짓수가 그렇게 많은줄 처음 알았다. 속이 메스꺼려 식사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그렇게 점심 저녁까지... 걱정하시며 죽과 미음을 만들어주셨는데 먹을 수가 없었다. 이들의 급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되었지만 더 큰 복병이 있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앉으면 "불러도 불러도 가지 말자!"를 외치며 나는 갔다. 졸지 않으려고 모두 식사하는동안 숙소로 가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좋은 곳까지 와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밥 굶고 머리



개지게 아프고, 말씀 못듣고 졸게 하려면, 자리 비우면 안되는 사업체에 두시지... 왜? 원망과 기도로 내가 음식에 체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임을.... 다음 말씀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시면 이 곳에 부르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통신마비! 졸음은 사라지고 폭죽이 터진다!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이 분주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사탄이 일하게 허락하고도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교만하게 남도 속고 나도 속는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알게 하셨다. 분주함의 세상에서 떠나고 내 속의 물 한 모금조차도 모두 비우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산장에 부르셔서 "너와 만나기 원하는데 넌 너무 바빠 만날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음성 들어 회개하게 하시고 쏟아지는 눈물로 외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우리 조상과 우리의 쓴 뿌리를 뽑아 치유하기 원하시며 영광 받으시려는... 이제껏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사건들 속에 함께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지켜주실 성령님께, 세상 먼길 돌아돌아 부르신 내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 주안에삶 소감문

"훈련을 통해서 받은 선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요로운 삶 1,2,3.권의 훈련을 마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이 훈련과정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1권은 저를 부르셨고 2권은 저를 택 하였고 3권은 저에게 기쁨 부어 주셔서 3가지 선물을 받았습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권 때 그 시간을 돌아켜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강진령 집사  
(벨리채플)

이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집에 갈 거라고 때쓰는 아이, 가기 싫다고 울기도 하는 그 연약한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일어나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넘어지는 걸 말입니다.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가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2권 때는 너는 나 없이 못살아.. 아버지 밖에 없습니...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시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뿌리칠 수 없는 선물도 계속 부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선물에 처음 기뻐하고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물이 주어지지 않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물만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점점 놓으려고, 혼자 있으려고 아버지의 애간장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3권이 시작될 무렵 그 부모는 너와 나 사이는 피로 맺어진 사이야 풀을 수가 없어... 조용히 속삭이곤 했습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실수로 끈을 놓칠까봐, 그 끈을 느슨하게 풀까봐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넘어졌다가, 앉았다가, 금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2,3.권의 훈련을 마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주려고 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은 나를 숨쉬게 했고 세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면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예레미야 1:7-9)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 겠노라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나를 돌아보게한 소중한 기회

저의 교구장님이 어느 주일날 주안에삶 과정이 곧 시작 되는데 신청하라고 권유하시길래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로는 단지 핑계일수도 있겠지만 매일 일 관게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막내육아를 포함 자식들 넷을 키우면서 신경써야하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병상에 계신 어머니까지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시간이 나게되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싶은 마음 밖에 없는 현재의 처해져있는 상황과 바쁜 일상속에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정 힘들면 그만하라는 교구장님의 설득에 못이겨 가지못해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이며저도 제 마음속엔 이미 '어짜피 한 두번 참석하고 못갈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병선 집사  
(벨리채플)

집에 온 후에도 계속 부담이되어 생각하기를 '아.. 끝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어짜피 끝까지 못할텐데...' 라는 생각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 어쨌든 일단 참석하기로 약속은 했으니 주안에삶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훈련과정과 규칙을 들은 후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격하고 할게 많은 것 같아서 더더욱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 이상 빠지게 되면 탈락이라는 얘기에 '어짜피 난 중도탈락할 확률이 높겠네...' 라는 스스로 이미 과정을 끝까지 못할거라는 체념의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림이 각각 정해지고 처음 읽는 벨리채플 교인들과 다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서 다음주에 또 참석을 해야하나? 아님 죄송하지만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고 교구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고민에 한숨이 폭폭 나왔습니. 고민을 며칠하다 아직 주안에삶 1과 성경공부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한번만 더 참석해보고 결정하자는 결단 아래 주안에삶 1권 과정 1과를 배우는 첫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1과 과정이 진행되며 인도자이신 구승환 장로님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새로 배우고 느끼면서 신앙적으로 소홀히 하며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보다 집중하게되며 1과를 마쳤습니. 첫 배움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배운 말씀을 떠올리며 제 삶에 비교해보며 지금까지 참 엉터리 신앙으로 살고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면서 내 자신을 바꾸어야할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힘들지만 한번 끝까지 참석해보도록 노력이라도 해보자하는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

그 후 2과 3과 4과... 를 끝내가면서 조금씩이나마 바뀌어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매번 한번만 더 해보자하며 하던게 어느새 6과 과정까지 빠짐없이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1과에서 6과까지 매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하며 배우나가면서 난생 처음 제대로된 성경을 읽는 숙제를 하고 소감문을 써내려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신앙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 고쳐야할게 한 두개가 아니라 썩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이 과정 하나 마친게 뭐가 그리 대단한거냐 하며 웃을 수도 있습니. 하지만 저 자신이나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일단 참석하는 것에 놀라고 끝까지 마친 것에 대해 더더욱 놀랍니다. 이것이 제가 주안에 삶 과정을 통해 은혜받고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주안에 삶을 참석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말씀의 습득과 기도함이 신앙적으로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되어 생활 자체가 바뀔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안에삶 1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저의 믿음 생활에 기초로 삼아 신앙적으로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한번 제가 주안에삶 1권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소감문을 마칩니다.

## “Happy Easter!” 가장 어린 예배자들



부활절을 맞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박이삭(박인환-성숙현 성도 아들), 구하선(구조셉-최빛나리 성도 딸), 조운(조원용-김연주 집사 아들)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밸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 “주안에” 2017년 5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